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 연구

유 대 호 *

I. 머리말
II.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특징
III. 경전의 유통과 존상 구성의 변화
IV. 맺음말

I. 머리말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불 열반 후부터 미륵불 당대 이전까지 무불시대에 육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보살이다. 지장 신앙 관련 기록과 작품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보이며, 이후로도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유행하였지만 특히 주목되는 시기는 조선 전기이다.

조선 전기의 지장보살상은 제작년대가 알려진 10여점을 포함하여 약 40여점이 남아 있다. 이를 분류하면 크게 민머리를 한 성문형과 머리에 두건을 쓴 피건형으로 구분되며, 자세, 수인, 지물 등도 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또, 존상 구성 면에서는 아미타삼존의 협시, 관음지장, 단독 존상, 명부권속과 결합한 지장시왕 등 주존 혹은 협시로 존격을 달리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형식과 구성의 다양성은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큰 특징으로, 여러 형태의 지장 신앙이 존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에 관한 연구는 아미타삼존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탐에 봉안된 지장보살상이나 여말선초의 지장보살상 등 지장보살상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도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1 민머리를 한 지장보살상의 경우 성문형, 사문형, 원정형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문형, 사문형은 경전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정형은 두건을 쓴 모습과 대비되는 민머리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한편,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의 경우 피모지장, 피건지장, 두건지장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머리를 한 지장보살상에 대해서는 '성문형',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에 대해서는 '피건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루어진 바 있다.² 본 논문은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구성이 아미타삼존에서 명부의 주존으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배경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형식, 구성 상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지장관련 경전인 『자비도량참법』과 『지장보살본원경』을 통해 당시 지장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경전과 작품을 비교하여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 조성의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특징

1. 형식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은 지물, 수인, 자세, 크기, 재료 등에서 다양하며, 두건의 유무에 따라서 피건형과 성문형의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피건형 지장보살상은 고려 후기에 크게 유행하여 조선 전기까지 계승되는 형식으로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반면, 성문형 지장보살상은 통일신라 시대 처음 나타나지만 이후 보이지 않다가 조선 전기에 다시 유행하는 형식이다. 즉, 조선 전기는 피건형, 성문형의 두 형식이 동시에 유행하는 독특한 시기이며, 피건형에서 성문형으로 유행의 흐름이 변화하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1) 피건형

피건형 지장보살상은 1392-1407년 사이에 제작된 〈상왕산 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비

² 조선초기 아미타삼존을 연구하면서 지장보살상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로 崔宣一, 『康津 無爲寺 極樂寶殿 阿彌陀三尊壁畫』, 『慶州文化研究』5(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2), pp. 253-278; 허형욱, 「전라남도 順天市 梅谷洞 석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청동불감」, 『美術資料』70·71(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147-164; 문현순, 「1450년~1460년대 기년명아미타삼존불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3(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128-157; 이분희, 「조선전반기 아미타불상의 연구」, 『강좌 미술사』27(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191-225 등이 있다. 또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1996)의 전반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장 신앙 및 명부전 도상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다루었다. 최근에는 朴贊熙, 「朝鮮初期 塔 奉安 地藏菩薩像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남궁사라, 「麗末鮮初 地藏菩薩像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등 지장보살상을 주로 다룬 석사 논문이 발표되었다.



도1 금동지장보살좌상, 고려 후기, 높이 95.9cm, 고창 선운사 도솔암(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도2 금동지장보살좌상, 고려 후기(1344년 추정), 높이 5.8cm, 금강 내강리 출토, 평양역사박물관(『조선유적유물도감』 1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못하여, 1453년 <금강산 은정골 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 1468년 <매곡동 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 1478년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³> 등 기년명 작품과 더불어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지장보살좌상>, <용문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 등 약 30여점이 남아 있다.

이상들은 대부분 대의에 편삼을 걸쳤으며 아미타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이리

한 착의법과 수인은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도1)이나 1344년 작으로 추정되는 <금강 내강리 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도2)⁴과 같은 고려 후기 피건형 지장보살상에서 이미 나타나며, 이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건의 형상에서는 고려 후기 지장보살상과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고려 후기 피건형 지장보살상은 머리에 완전히 밀착된 둥근 형태로 두건을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이 대표적으로, 이 상의 두건은 얇은 천을 머리에 밀착시킨 듯 정수리가 둥글고 두건을 묶은 띠가 양쪽 귀 위에서 매듭지어진 형태이다. 금강 내강리 출토 상 2구나 1383년 <은제지장보살좌상> 역시 같은 형태의 두건을 쓰고 있어 고려 후기의 시기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경우 두건의 양감이 강조되거나 두건을 묶은 띠의 모습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1453년 <금강산 은정골 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도3)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룩한 두건의 윗부분에 두 줄의 세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두건의 질감과 양감이 강조되어 사실적이며, 두건을 묶은 띠가 양쪽 귀 위에서 매듭진 모습은 고려 후기 상들과 유사하다. <용문사 성보박물관 목조지장보살좌상>(도4)

3 강진 무위사 아미타삼존상은 보림사 삼층석탑 중수탑지의 내용을 통해 1478년에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崔宜一, 앞의 논문, pp. 259-261.

4 금강군 내강리 출토 상들은 1974년 금강산 만폭동 금강대에서 발견되었으며, 총 9구의 상중에 1344년의 기년이 있는 상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 238-239.



도3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1453년), 높이 약 15cm, 평양역사박물관(『조선유적유물도감』 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4.)



도4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50.1cm, 용문사 성보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제공)

살좌상(도 7)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특히 이 유형의 상들은 띠매듭을 표현하지 않거나 띠의 끝 자락을 생략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는 두건을 고정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유형은 두건에 도식적인 가로주름을 표현한 상들로, 앞의 두 유형에 비해 사례가 적은 편이다.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지장보살좌상(도 8),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도 9) 등이 대표적 예이며, 이 상들의 경우 두건을 고정하는 띠의 매듭이 뒤통수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앞의 두 유형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특징으로, 또 다른 두건 고정 방식의 형성을 짐작케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피건형 상은 두건이 불룩하게 표현되어 양감을 강조하는 모습이 공통적이며,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⁶ 가로, 세로의 주름이나 접힌 듯한 표현 등을 통해 두건의 부피

도 같은 형태의 두건을 쓰고 있으며, 이 상들은 수인이나 자세, 두건의 표현 등에서 전 시기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나 주름 표현으로 두건의 부피감을 강조한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모자처럼 각지고 양감있는 두건을 표현한 상들로,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도 5)이 대표적이다. 이 상의 두

건은 좌우로 두 번씩 접혀 각진 모습을 보이며, 巾보다 帽에 가까울 정도로 부피감이 강조되었다. 각지고 부피감 있는 두건을 착용한 지장보살상은 조선 전기에 자주 보이며, <무량사 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도 6)⁵이나 <동학사 길상암 금동지장보

5 무량사 상은 아미타삼존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문은 없으나 조선 초기의 상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文明大는 198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상을 15세기 말의 상으로 추정하였으며, 文明大, 『朝鮮前期彫刻樣式의 研究(1)』, 『梨花史學研究』 13·14(이화사학연구소, 1983) p.53 이후의 연구에서도 이 상을 조선 초기 혹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상으로 편년하고 있다. 朴贊熙, 앞의 논문, pp. 22-24; 남궁사라, 앞의 논문, p. 49.)

6 다만 1515년 작 석조지장보살좌상의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고려 후기 피건형 상과 같은 둥근 형태의 두건을 쓴 예가 있으며, 이는 석조라는 재질상의 특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도5 목조지장보살반가상, 조선 (1478년), 높이 142cm, 강진 무위사(『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2, 문화재청·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도6 무량사 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24.5cm, 불교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도7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31.8cm, 동화사 길상암(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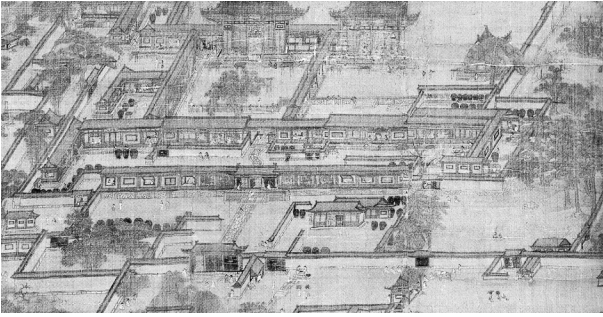
도8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85cm, 선운사 성보박물관(『삼, 그후』, 불교중앙박물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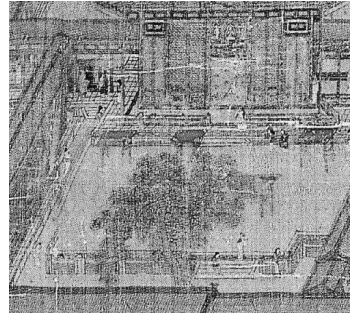
도9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80cm, 선운사 참담암(직접 촬영)

감을 강조하는 모습은 고려 후기 피건형 상과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두건을 고정하는 띠의 표현이나 묶는 방식, 띠매듭의 위치 등 두건 고정 방식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승려들의 실제 두건 착용의 법과 연관되는 점에서 흥미롭다. 조선 전기 작으로 추정되는 〈宮中崇佛圖〉(도 10)에서는 복건의 형태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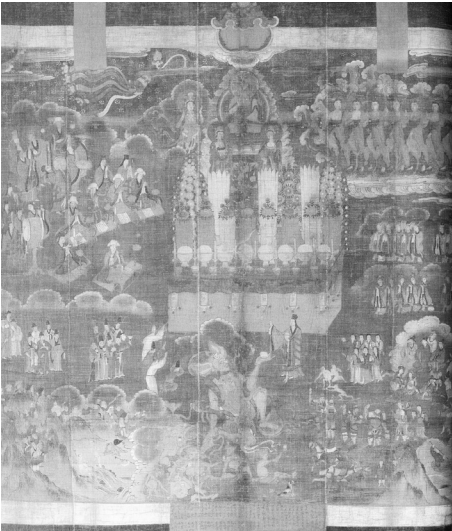
사한 쓰개를 쓴 승려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건의 자락을 앞으로 당겨 얼굴만을 내놓은 건을 착용하고 있다.(도 11) 또, 1589년에 제작된 〈日本藥仙寺 소장 감로도〉(도 12)에서도 화면 중앙의 승려나 바라와 북을 연주하는 승려들이 모두 검은색 두건을 착용하고 있다. 이들의 두건은 각이진 형태에 윗부분이 높이 솟아 있어 조선 전기 피건형 지장보살상의 두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도 10 宮中崇佛圖, 조선 전기, 46.5×91.4cm, 리움 박물관(『朝鮮前期國寶展』, 호암미술관, 1996.)



도 11 도 10의 세부(『朝鮮前期國寶展』, 호암미술관, 1996.)



도 12 감로도, 조선(1589년), 169.3×158.2cm, 일본 藥仙寺(『조선시대 감로맹 특별전-甘露』,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문헌 기록에서도 두건을 착용한 승려가 확인된다. 허목(1595-1682)이 저술한 『미수기언』 別集卷之九 『橫山記』에서는 “그 法堂이 강을 굽어보고 있어, 종이 가사를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염주를 굴리며 불경을 외는 것과...”라고 하여 검은 두건을 쓴 승려를 묘사하였다. 김성일(1538-1593)의 문집에서는 승려의 두건에 관한 보다 확실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그는 퇴계 이황에 대하여

金就礪가 幅巾과 深衣를 만들어 보내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복건은 승려들이 쓰는 두건과 같아서 쓰기에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하고는, 심의를 입고 程子冠을 썼다.⁸

라고 언급하였다. 이 기록은 당시 승려들의 일상적인 두건 착용과 더불어 복건과의 유사성을 말해준다. 이덕무(1741-1793) 역시 서울 승가사 승가대사상의 두건이 유가의 복건과 흡사하다고 하여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⁹

7 『眉叟記言』 別集 卷之九 記, 『橫山記』 “...佛壁臨江 僧袈裟緇巾數珠誦佛者...”

8 『鶴峯先生文集續集』 卷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金就礪造幅巾深衣以送, 先生曰, 幅巾似僧巾, 著之似未穩, 乃服深衣, 而加程子冠, 晚年齋居如此, 客來則改以常服焉.”

9 『靑莊館全書』 卷57 叢葉記四, 『僧伽寺石像』 “三角山僧伽寺石窟, 有石像, 顏如老嫗, 蒙頭之物, 恰如儒家幅巾...”

복건은 사대부들이 착용하였던 巾 종류 중 하나로, 『가례집람도설』에서는 『주자대전』을 인용하여 그 형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복건은 검은 비단을 6척 가량 써서 만들며, 건의 꼭대기 부분은 둥그런 모양을 만들고, 이를 고정하는 띠를 뒤통수 부근에서 묶는다는 것이다.¹⁰ 둥그스름한 윗부분과 뒤통수 부근에서 띠를 묶는 모습은 선운사 성보박물관 상 두건의 띠매듭과 유사하다. 이처럼 지장보살상과 현존 유물에 그려진 승려의 두건, 문헌기록에 보이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승려들이 실제 착용했던 두건 형태가 지장보살상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성문형

조선 전기 성문형 지장보살상은 약 10여점 정도가 남아 있으며, 1565년 작 <목포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반가상>(도 13), 1578년 작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도 14) 등 기년명 상이 있어 조선 전기 성문형 상의 구성과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상의 크기는 10cm 내외의 소형 상부터 달성사, 청량사, 개심사 상 등 전각에 봉안된 1m 이상의 대형 상까지 다양하다.

조선 전기 성문형 상은 자세가 다양하고, 석장과 보주 등 지물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자



도 13 목조지장보살반가상, 조선 (1565년), 높이 141cm, 목포 달성사(『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1, 문화재청·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도 14 목조지장보살반가상, 조선 (1578년), 높이 132.3cm, 봉화 청량사(『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Ⅱ-2, 문화재청·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8.)

세의 경우 대부분 좌상으로 표현되는 피건형 상과 달리 입상, 반가상, 좌상이 고루 나타나며, 특히 입상의 경우 현존하는 환조 상 중 성문형 상에서만 나타나 주목된다.

지물은 석장과 보주를 동시에 취하는 점이 특징이다. 성문형 지장보살상은 대부분 한쪽 손을 가슴 위로 들어올려 석장을 쥐었으며, 다른 쪽 손은 배 부근에서 보주를 쥐고 있다. 이는 <달성사

¹⁰ 『沙溪全書』卷二十四 家禮輯覽圖說 幅巾圖 “朱子大全, 用黑緞六尺許, 刺一邊作巾額, 當中作幅, 兩旁三寸許, 各綴一帶, 廣二寸許, 長二尺許, 循幅中上反屈之, 當幅之中, 斜縫向後, 去其一角而復反之, 使巾頂正圓, 乃以額幅當頭前向後圍裏, 而繫其帶於腦後, 餘者垂之...(후략)...”



도 15 목조지장보살입상, 조선 전기, 현재 소실(영암도갑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이나, <영암 도갑사 목조지장보살입상>(도 15)¹¹ 등 자체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석장을 쥐기 위해 오른손에 수인을 결하지 않는 상도 있다. 이는 피건형 상이 대부분 수인을 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문형 상의 경우 수인의 결인보다도 지물의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석장과 보주를 든 지장보살상은 고려 후기 불화에는 보이지만 경천사지십층석탑의 부조를 제외하고 불상의 작례는 없으며, 선정인을 취해 석장을 쥐려는 의도 자체를 배제한 상도 있다. 조선 전기 피건형 상도 전 시기의 도상을 계승하여 석장을 쥐는 상은 매우 드물다. 반면, 성문형 상은 보주와 석장을 동시에 든 예가 많아 피건형 상에 비해 자물로 석장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문형에 수인을 결하지 않은 채 석장과 보주



도 16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 조선(1474년)/인출(1631년), 見性寺 刊, 단양 구인사(『木板에 새긴 佛心』, 관문사 성보박물관, 2006.)

를 든 모습은 1474년 견성암에서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의 변상도에서도 보인다(도 16).¹² 조선 전기 명과 조선과의 활발한 불서 교류는 익히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판본의 『지장보살본원경』 역시 수차례 간행된 바 있다. 석장과 보주를 쥐는 성문형 지장보살상이 조선 전기에 다시 등장하여 유행하는 것도 이러한 관계의 일환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¹¹ 도갑사 상들은 1977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도갑사 해탈문의 상량문에 따르면 해탈문은 세조 3년(1457)에서 성종 4년(1473) 사이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최성은은 도갑사 상의 중건 공사 역시 이 시기에 행해졌을 보고 상의 제작시기를 1457-1473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崔聖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강좌 미술사』 19(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pp. 53-54.

¹² 변상도는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지장보살을 비롯한 4위의 보살과 제석천, 제자들, 9명의 대왕, 聽聞하는 摩耶夫人 등이 한 화면에 등장하며, 지장보살은 본존인 석가모니의 우협시로 표현되고 있다.(박도화, 『朝鮮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 105.)

2. 지장보살상의 구성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존상 구성은 크게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 본존이 없이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짝을 이룬 관음지장, 단독으로 조성된 독존, 양 협시를 거느리고 시왕 및 명부 권속과 결합한 지장삼존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도 17 상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조선(1392-1407년), 높이 12cm(지장보살), 국립부여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제공)

이 중 아미타, 관음, 지장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은 가장 많은 사례가 남아있다. 1392-1407년 제작된 <상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도 17)을 시작으로 금강산 출토의 소형 금동상들, 매곡동 탑 봉안 아미타삼존, 무위사 아미타삼존 등 15세기 기년명 지장보살상 대부분이 아미타삼존의 구성이다. 이 외에



도 18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선(1515년), 높이 33.4cm,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홈페이지)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발원문에도 관음, 지장과 함께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원래는 더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미타, 관음, 지장의 삼존 구성은 1383년 <개인소장 은제아미타삼존불> 등 고려 후기에도 다수 나타나 조선 전기까지 계승되는 구성이다.

관음, 지장의 두 보살만을 조성한 예는 1515년 작 <석조지장보살좌상>(도 18)이 있다. 이 상은 대좌 후면 명문에 “造成地藏觀音”이라고 적혀 있어 본래 관음보살과 한 쌍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 조선초 작으로 추정되는 <고봉국사주자원불>(도 19)의 양쪽 문에도 관음, 지장보살 입상이 주조되어 있다.¹³ 불감 내부에 협시보살이 따로 주조되어 있기 때문에 문비의 관음, 지장상은 본존의 협시라기보다는 별도 구성으로

¹³ 이 불감의 제작년대는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최근 도상과 형식 비교 등을 통해 14세기말에서 15세기 초반의 작품으로 추정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은우,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 『불교미술사학』 15(불교미술사학회, 2013), pp. 119-121.



도19 고봉국사주자원불, 고려말 조선초, 높이 23cm, 송광사 성보박물관(『삼국후』, 불교중앙박물관, 2010)



도20 용암사지 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13.3cm, 국립광주박물관(직접 촬영)

생각되며, 일종의 관음지장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또, 1462년 작 <흥천사 중>의 명문에도 관음지장상을 조성한 기록이 있다. 명문에는 “꿈에 관음, 지장의 두 보살이 응대하는 기적을 보이자 두 보살상을 만들고... 선종 흥천사 사리각에 봉안하였다.”¹⁴고 적혀 있어, 관음, 지장의 두 보살을 조성하고 회암사에서 분신한 진신사리를 봉안한 것이 확인된다.

지장보살만을 조성한 독존상도 고려 후기부터 나타나는 구성으로,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이 대표적이다. 또,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용암사지삼층석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청자호 및 철편, 사리 등과 함께 발견되었는데(도 20), 지장보살 1구만이 봉안된 것으로 보아 독존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밖에 김수온(1410-1481)이 지은 『靈鑑菴重創記』에서도 “중앙에 불전을 두어 지장보살 1구를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지장보살을 단독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마지막으로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삼존과 시왕상이 함께 조성된 예는 목포 달성사, 봉화 청량사의 존상이 있다. 달성사 상은 발원문에 嘉靖 44년(1565) 全羅道 南○地熊○寺에 지

¹⁴ “又夢觀音地藏二菩薩相對之異乃造二像既成各安舍利於中妥靈于禪宗興天寺之舍利閣”

¹⁵ 『式牕集』卷之二 記, 『靈鑑菴重創記』, “臺山五朶之峯, 峯峯奇秀, 浮屠氏多屋於其間, 其南臺之南, 有號靈鑑菴, 昔普濟尊者, 嗣法平山處林禪師, 暨其東遷, 遂入臺山, …(중략)…越丁亥三月春, 始功, 至己丑秋, 告訖, 前後退三間, 中爲佛殿, 栖地藏一軀, 西爲祖室, 垂懶翁影, 東爲正廚, 又立四間於其東, 二間爲柴廠, 二間爲溜浴之處.” 특히 위 기록에 따르면 영감암은 오대산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오대산 남쪽은 『삼국유사』 등에서 보이듯 예부터 지장보살의 거처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절을 증창하며 지장 독존상을 봉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삼존과 시왕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지장삼존과 시왕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¹⁶ 청량사상은 현재 지장삼존만 남아 있지만, 발원문에 지장보살과 시왕이 중생을 제도함을 언급하여¹⁷ 원래 지장삼존과 시왕을 함께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들은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양협시, 시왕, 명부 권속이 한 전각에 모셔진 이른 시기의 예로 중요하며, 늦어도 이 시기에는 명부전을 중심으로 한 존상 구성이 확립되고 유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은 아미타삼존의 협시에서 점차 명부 주존으로 이행하는 존격 변화가 주목된다. 즉, 15세기 기년명 지장보살상이 대부분 아미타삼존 협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16세기부터는 달성사, 청량사 상처럼 명부 주존으로서의 지장보살상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1473년부터 진행된 선운사 중창불사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선운사는 德源君의 후원으로 幸浩 克胤의 제자인 終諡 등에 의해 크게 중창되어 총 111개의 건물이 새롭게 창건되었는데, 이 목록에서는 지장전과 시왕전이 별도의 전각으로 등장한다.¹⁸ 조선 초기 대표적 대규모 왕실 불사인 선운사 중창 과정에서 명부전이 아닌 지장전과 시왕전이 각각 등장한 것은 15세기까지도 지장보살과 시왕을 별도로 예배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현존 유물 등을 참고해 보면 16세기부터는 지장삼존과 시왕 및 명부 권속이 한 공간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이 때 지장보살은 명부전의 주존으로 존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Ⅲ. 경전의 유통과 존상 구성의 변화

1. 지장 관련 경전의 판각과 간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은 아미타삼존의 협시에서 명부 존상의 주존으로 구성과 존격이 변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곧 지장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 전기 지장 관련 경전의 간행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왕조는 공식적으로 승유억불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왕실의 개인적 불사 및 불교 의식의

¹⁶ “嘉靖四十四年乙丑十一月初二日記朝鮮國全羅道南□地熊□寺地藏及兩□處尊十王尊位各像自春爲始至秋爲終安...(후략)” 발원문의 전문은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 I. II. III 자료집』(문화재청·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p. 163에 실려 있다.

¹⁷ “夫地藏菩薩與十王等尊皆爲度生□□□□...(후략)”

¹⁸ 중창 목록에 대해서는 吳京厚, 『朝鮮前期禪雲寺의 重創과 展開』, 『신라문화』 33(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p. 166의 <표 1>을 참조하였다.

檀越 행위는 조선 전기까지 지속되었다. 왕실의 대표적 불사 중 하나는 경전의 판각 및 간행으로, 특히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구성원이 사망할 때마다 재의식을 행하고 추선과 천도의 의미로 사경, 인정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표 1 조선 전기 왕실의 인정 및 사경 불사

년도	간행 경전	발원 목적	발원자	출처
1446	法華經, 彌陀經, 普門品, 梵網經, 起信論, 地藏經, 慈悲懺 사경	소헌왕후 명복 기원	왕실 발원	동문선 제103권 諸經跋尾
1447	法華一件 楞嚴一件 懺法一件 등 인쇄	예종대왕 명복 기원	숙빈 최씨	상고정본자비도량참법 (충북유형문화재 제267호)
1447	자비도량참법	태종, 원경왕후, 소헌왕후, 부모 영가 추선	명빈 김씨소해궁 주로씨	상고정본자비도량참법 (보물 1143) 상고정본자비도량참법 (보물 1252)
1447-1450	地藏經 간행	태종, 윤경왕대후, 소헌왕후 명복, 극락왕생	왕실발원 추정	지장보살본원경 (보물 933)
1450	法華, 梵網, 楞嚴, 彌陀經, 觀音經, 地藏經, 懺經, 十六觀經, 起信論 - 사경	세종대왕 명복 기원	문종 발원	조선왕조실록 문종 즉위년 경오4월10일 (계미)
1462	지장경 간행		간경도감	고려대 도서관
1469	水陸儀文, 結手文, 小彌陀懺 妙法蓮經, 地藏經	남편 安孟聃 명복 기원	정의공주	지장보살본원경 (보물 966)
1472	法華經, 楞嚴經, 圓覺經, 注華嚴經, 維摩經, 懺經, 心經, 六經合部, 梵網經, 地藏經, 藥師經, 恩重經 등 29종	세조, 예종대왕 극락왕생 인성대군 명복기원 한확 안성부인 홍씨 극락왕생 등	인수왕비전하	불조역대통재(보물 737)
1474	法華經十件, 懺經五件, 地藏經五件; 六經合部十件 修心訣三法語 各二十件; 結手中禮文三件 사경	죽은 부모의 명복기원	상의 조씨	묘법연화경 권5-7 (보물 제959-4-9호)
1474	慈悲三昧懺, 夫彌陀懺	공혜왕후명복 기원 선대왕 추선	정희왕후	예념미타도량참법 (보물 949, 보물 1144)
1474 (1485 보각)	地藏經 간행	공혜왕후 명복 기원 세조대왕 극락천도, 정희대비 수복무궁, 광평대군 극락왕생	정희대왕대비인 수왕비 안순왕 대비등 永順君	지장보살본원경 (보물1104, 보물1567)

1481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자비도량참법 각 1부	양조모 신속화처 김씨 추선	인혜왕대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상교정 본자비도량참법
1482	法華經, 大彌陀懺, 圓覺經, 懺經, 地藏經, 六經合部等經 各十四件 간행	명숙공주 극락왕생 기원	인수대비	묘법연화경 6-7 (보물936-1)
1488	法華經, 懺經, 地藏經 各十有四件 간행	순숙공주 극락왕생을 기원	정현왕후	묘법연화경 5-7 (보물950)
1489	法華經, 地藏經, 六經合部 彌陀 禮懺, 慈悲禮懺, 藥師經, 恩重經 각 15부	일산대군 명복 기원	승평군부인박씨	학조, 지장보살본원경 발문,

〈표 1〉에 따르면, 조선 전기 망자 추선을 위해 왕실에서 사경 및 인경된 경전은 총 15건이며 간행 시기는 15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발원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경전을 간행하였으나, 간행 횟수 별로 살펴보면 『지장보살본원경』 12건, 『묘법연화경』과 『자비도량참법』 10건으로 세 경전이 망자 추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특히 1481년 간행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경우 이 세 경전만을 간행하였으며, 1470년 각판하고 1488년에 인쇄한 『묘법연화경』의 간기에서도 “印成法華經 懺經 地藏經 各十有四件”이라 하여 세 경전만을 인쇄하였음이 확인된다.¹⁹ 때문에 이 세 경전이 망자의 추선 및 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 경전 가운데 지장 신앙과 관련되는 경전은 『지장보살본원경』과 『자비도량참법』이다. 두 경전과 망자 추선과의 직접적 관계는 강석덕(1395-1459)이 쓴 발문에 보이는데, “지장경의 구원은 육도고통(苦趣)에서 빼내는 것이며, 자비참의 참회는 세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²⁰이라 하여 두 경전을 각각 구원, 업의 소멸 등과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다.

懶庵 普雨(1509-1565)의 저술에서는 두 경전과 지장보살과의 관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보우는 『薦母疏』에서 “『지장경』과 『자비참』의 두 법문은 모든 중생 제도의 秘訣”이라 하여 두 경전의 공덕을 찬탄하는 한편 亡母 천도를 위해 “효와 힘을 다해 그 識(자비도량참법)을 인쇄하고 그 經(지장보살본원경)을 베껴 장황을 마쳤으며”, “경찬의 법석을 열고 冥陽의 법회를 개설하여 백천

¹⁹ 조선 전기 懺法류 경전에는 『예념미타도량참법』과 『자비도량참법』의 두 경전이 있다. 조선 전기의 경전 간행 기록에서 『예념미타도량참법』은 彌陀懺, 大彌陀懺, 彌陀禮懺 등으로 지칭하며, 『자비도량참법』은 慈悲懺, 懺法, 懺經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1482년 간행한 『묘법연화경』 5-7권의 간기에는 “命印法華經 大彌陀懺 圓覺經 懺經 地藏經 六經合部等經 各十四件...”이라 하여 대미타참(예념미타도량참법)과 참경(자비도량참법)을 구분하며, 본문의 懺經도 『자비도량참법』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²⁰ 『東文選』 卷03 跋 『諸經跋尾』, “...曰法華經, 妙萬法而明一心, 彌陀經, 指歸安養, 長享極樂, 普門品機情密契, 人法俱妙, 梵網經, 衆生持戒, 卽入佛地, 起信論, 具大信乘, 不種佛種, 與夫地藏經之救拔苦趣, 慈悲懺之洗濯塵垢者, 悉皆表章之, 用金泥丹砂...”

만약본신의 지장보살이 도량에 운집하기를” 서원하고 있다.²¹ 이를 통해 조선 전기 두 경전이 망자 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인식되었으며, ‘명양의 법회’로 언급된 추선 의례에서 지장보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지장보살본원경』과 『자비도량참법』의 두 경전은 망자 천도 및 추선과 관련되며, 지장보살의 존격 및 구성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 경전에서 보이는 지장보살의 역할과 경전의 유행 시기 등은 조선 전기 지장보살의 조성 경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비도량참법』과 존상의 구성

『자비도량참법』은 여러 경전의 참회 관련 내용을 종합한 참회문의 총서로, 520년 양 무제에 의해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원대에 교감을 거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이 유입되어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크게 유행하였다.

현존 유물은 1316년에 간행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9-10을 시작으로 약 10여점이 남아 있으며, 고려 후기 본 2점, 조선 초기 본 8점으로 간행 시기는 14-15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1462년 간경도감에서 발행한 보림사 소장본은 1447년에 김구덕의 아들과 명빈, 雪月軒人 등이 태종, 원경왕후, 소헌왕후 그리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새긴 것을 간경도감에서 후쇄하였으며, 한술종이박물관 소장본은 1474년 정희대왕대비가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하는 등 왕실에서도 간행한 경전이다. 특히, 고려 말 조선 초의 고승이자 조선 태조 대의 국사였던 祖丘는 당시 전해온 『자비도량참법』의 주석을 종합하고 자신의 저술을 덧붙여 『자비도량참법집해』를 집행하였는데²², 이는 당시 『자비도량참법』이 대중에게 활발히 유통되고 읽혀졌음을 알려 준다.

참법은 크게 대중의 과보를 참회한 후 발원하고 회향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참회나 발원의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차례로 과거칠불, 35불, 53불, 170불, 현겁천불의 명호를 나누어 칭명하고 1배를 올리는 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칭명염불을 할 때는 중간의 명호와 관계없이 처음은 “南無

²¹ 『欄庵雜著』 『薦母疏』(韓國佛教全書 7권, p. 589.) “地藏經慈悲懺兩般法文 言言皆度生之秘訣 金氏女富壽心萬種孝禮 事事悉薦母乎樂邦 宜憑妙熏 仰丐支佑 仰念某靈駕... (중략)... 卽斯懺寫斯經而盡孝盡力 粧潢告畢誓願云 周特開慶讚之勝筵 係設冥陽之法會 於是百千萬億分身地藏菩薩 雲集道場 八萬四千障性塵勞業緣...”

²² 祖丘는 1310년대 후반에 출생하여 1395년에 입적한 여말선초의 고승으로, 『자비도량참법집해』의 간행년대는 14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자비도량참법집해』는 『자비도량참법』에 나오는 語句나 문장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미 주석되어 있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수시로 인용하여 그 의미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만, 『高麗 彌授의 유식사상-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20(한국불교학회, 1995), pp. 383-384.)

彌勒佛 南無釋迦牟尼佛”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南無無邊身菩薩 南無觀世音菩薩”로 끝을 맺고 있다. 따라서 미륵불, 석가모니불, 무변신보살, 관세음보살의 네 불보살이 자비도량참법의 법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불보살 가운데 무변신보살은 곧 지장보살이다. 조구가 저술한 『자비도량참법집해』에서는 無邊觀音流通懺力을 설명하며 “이 두 보살이 자비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며, 그 자비력을 빌려 이 참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력의 유통이라 말한다. 또 무변신보살은 곧 지장보살로 이 보살은 영원히 죄의 뿌리를 없애주며, 관음보살은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참력의 유통이라 말한다”²³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 무변신의 명칭에 관해서는 “무변신이라는 것은 또 지장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지옥에서 가없는 몸(無邊身)을 나타내어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하고 영원히 죄의 뿌리를 없애준다”고 언급하였다²⁴. 이에 따르면 무변신보살은 바로 지장보살이며, 관음보살과 짝을 이루어 참법을 현세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변신보살과 관련하여 나옹 혜근의 가송집인 懶翁和尚歌頌에서는 “如彼文殊大智慧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藏無邊身 如彼觀音三十應”이라 하여 이미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짝을 이루며 지장보살은 무변신으로, 관음보살은 삼십응신으로 대변된다.²⁵ 또한, 霽月堂 敬軒(1542-1632)이 쓴 보개산 석대암 지장보살상 중수모연문에서는 “南倭의 병사들에 의해 전각이 모두 불타 재가 되었고 오직 지장무변신여래의 석상만이 남았으며 땅 위에 노출된 채로 앉아 있어 비에 씻기고 바람에 마모되었다”²⁶고 하여 역시 지장보살을 무변신이라 칭하였다.

그런데 관음, 지장보살의 懺力을 강조하는 『자비도량참법』의 유행 시기인 14-15세기는 아미타, 관음, 지장으로 이루어진 아미타삼존 구성이 유행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술하였듯 아미타삼존에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이 포함되는 구성은 고려 후기에 다수 나타나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며, 이는 관음지장 신앙을 특히 강조하는 『자비도량참법』의 유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비도량참법』의 법석은 기본적으로 과거칠불 이후부터 미래불의 도래 사이인 무불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무불시대에 시방제불에게 참회하여 업을 해소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무변신, 즉

²³ 『慈悲道場懺法集解』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卷第七』(韓國佛教全書 12권, p. 125) “無邊觀音流通懺力者 授師云 此二菩薩 偏以慈悲 拔衆生苦 借慈悲力 集此懺法 故云流通懺力 一云無邊身 卽地藏 此菩薩 永滅罪根 觀音 拔苦與樂 故云流通懺力”

²⁴ 『慈悲道場懺法集解』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卷第一』(韓國佛教全書 12권, p. 58) “[學士當詳] 又無邊身者 亦名地藏 於諸地獄 現無邊身 代苦衆生 故號永滅罪根”

²⁵ 특히 나옹화상가송의 경우 1450년 통도사 금동삼존불의 발원문이나, 15세기 초로 추정되는 金物金 발원 金동제요존 상의 발원문에 포함되는 등 조선초기까지도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은우, 앞의 논문, pp. 115-116.

²⁶ 『霽月堂大師集』 卷之下 『寶蓋山石臺庵重修募勸文』(韓國佛教全書 8권, p. 123.) “弟恨南倭兵火之所至 寶殿盡燒 爲煨燼而 唯餘石地藏無邊身如來 露地而坐 雨洗風磨”¹⁶.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은 무불시대 시방제불을 보좌하며 중생을 지옥, 현세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참회를 통해 업을 해소하는 『자비도량참법』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 신앙의 성격과 결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문헌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1578년 제작된 <청량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의 발원문에서는 『자비도량참법』의 주존인 미륵불이 아미타불과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다. 발원문에서는 “미타를 친견하여 수기를 받고 용화회로 되돌아 미혹한 중생을 돕고 깨달음의 궁극적 결과를 얻어 ○○을 영원히 구제하네”²⁷라고 하여 미타정토(극락)으로 가 수기를 받은 후 미륵의 도래(용화회) 때에 다시 현세로 돌아오기를 서원하고 있으며, 미타정토와 미륵정토가 융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비도량참법』의 본존은 미륵이지만 한편으로는 무불시대의 시방제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미타 신앙이 결합될 근거를 제공한다. 때문에 고려 후기 유행했던 아미타 신앙과 참법의 관음, 지장보살 신앙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아미타삼존의 구성에 지장보살이 포함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지장보살은 지옥행의 과보에서 구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세 구교의 관세음보살, 사후 정토왕생의 아미타불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반면 『자비도량참법』의 간행은 16세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 역시 아미타, 관음, 지장의 삼존 구성이 사라지는 경향과 일치해 경전과 존상 구성과의 영향 관계를 짐작케 한다.

3. 『지장보살본원경』과 존격의 변화

『지장보살본원경』은 알려진 것처럼 육도 구제 중에서도 특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제자인 지장보살이 강조된 경전이다. 이는 지장 신앙이 명부, 시왕 신앙과 결합되는 단서를 마련하며, 불상 제작에 있어 지장보살 존격의 변화와도 관계된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의 경우 기존의 경전과 역자 및 권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당말오대 사천과 돈황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지장보살본원경』이 실차난타역의 상하 2권본인데 비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지장보살본원경』이 3권으로 서술되어 있다.²⁸ 현존 유물 역시 1469년 貞懿公主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지장보살본원경』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의 『지장보살본원경』은 전부 3권본으로 나타난다.²⁹ 반면 실차난타역의 2권본 『지장보살본원경』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예가 없다.

²⁷ “...速見弥陀 卽蒙搜記 還出龍華佳會 助化群迷 遂證極果永度 ○○”

²⁸ 『文宗實錄』 1卷 卽位年(1450) 4月 癸未 “我世宗大王晏駕...爰命善措俾金, 書法華七卷 梵網二卷 楞嚴十卷 彌陀經一卷 觀音經一卷 地藏經三卷 懺經十卷 十六觀經一卷 起信論一卷, 悉用楨賤...”

²⁹ 박도화, 『朝鮮時代 刊行地藏菩薩本願經 版畫의 圖像』, 『고문화』 53(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9), pp. 6-7.

3권본 『지장보살본원경』은 法燈 혹은 法據 역 『지장보살본원경』을 의미한다. 이 종류의 『지장보살본원경』은 안성 淸源寺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백지은니지장보살본원경권』 등 고려 후기부터 등장하며, 내용은 2권본과 동일하지만 품을 나누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3권본의 경우 역자인 법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유입 과정 및 시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15세기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 중 몇 종류의 판본에는 하권 말미에 “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라고 적혀 있는데, 현존하는 국간 및 시간 대장경 가운데 『지장보살본원경』은 洪武南藏(1372-1398)부터 수록되기 시작하며 그 중에도 ‘橫’의 합자를 가진 『지장보살본원경』은 홍무남장이 유일하다. 때문에 법등 역 3권본의 유입은 홍무남장이 조성된 14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주목된다. 첫 번째는, 지장보살이 다른 불보살과 비교하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이다. 지신희법품에서는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의 증생 제도는 유한하지만 지장보살의 증생 제도는 무한하다고 하며 다른 보살보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더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⁰ 두 번째는 지옥 구제의 역할을 부각하며 염라천자, 귀왕, 지옥 권속 등이 지장보살의 권속으로 등장하는 점이다. 염라왕중찬탄품에서는 염라왕과 모든 귀왕들이 지장보살의 권속으로 등장하며,³¹ 또 지옥명호품에서는 수많은 지옥의 명칭과 과보를 언급하여 지옥 구제자로서 지장보살의 역할을 설명한다.³² 즉,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옥, 명부의 주재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보살에 비해 그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법등 역의 3권본은 조선 초기에 간행 횟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주목된다. 조선 시대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 24종 가운데 15세기 본은 8종으로 전체 간행본의 1/3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지장보살본원경이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이 후에도 유행이 계속되고 보급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³

또한, 한글 창제 이후 제작되어 널리 보급된 언해본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에도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1447년 간행된 『석보상절』 권11에는 석가여래가 마야부인에게 설법

³⁰ 『地藏菩薩本願經』地神護法品(T. 0412, 大正藏 13, p. 787), “是地藏菩薩摩訶薩 於諸菩薩 誓願深重 世尊 是地藏菩薩 於閻浮提 有大因緣 如文殊普賢觀音彌勒 亦化百千身形 度於六道 其願尚有畢竟 是地藏菩薩 教化六道一切衆生 所發誓願劫數 如千百億恒河沙”

³¹ 『地藏菩薩本願經』地神護法品(T. 0412, 大正藏 13, p. 787), “是地藏菩薩摩訶薩 於諸菩薩 誓願深重 世尊 是地藏菩薩 於閻浮提 有大因緣 如文殊普賢觀音彌勒 亦化百千身形 度於六道 其願尚有畢竟 是地藏菩薩 教化六道一切衆生 所發誓願劫數 如千百億恒河沙” 『地藏菩薩本願經』閻羅王眾讚歎品(T. 0412, 大正藏 13, p. 784), “爾時, 鐵圍山內, 有無量鬼王, 與閻羅天子, 俱詣切利, 來到佛所…(중략)…是諸鬼王, 與閻羅天子, 承佛威神, 及地藏菩薩摩訶薩力, 俱詣切利, 在一面立”

³² 『地藏菩薩本願經』地獄名號品(T. 0412, 大正藏 13, p. 781), “爾時, 普賢菩薩摩訶薩白地藏菩薩言 仁者 願為 天龍四眾, 及未來現在一切眾生, 娑婆世界及閻浮提罪苦眾生, 所受報處地獄名號, 及惡報等事, 使未來世末法眾生, 知是果報

³³ 조선 시대에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의 목록은 송유나, 『朝鮮 初期刊行 『地藏菩薩本願經』의 書誌學的 研究』(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 26의 표5를 참고하였다.

하고 지장보살에게 미래 중생의 제도를 부촉하는 도리천궁신통품과 분신집회품이 수록되었으며, 나아가 1459년 간행된 『월인석보』 권21에는 『지장보살본원경』 13품 전체가 수록되었다. 석가 여래가 어머니인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거나, 지장보살이 전생에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는 등 『지장보살본원경』에 유난히 효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따라 조선 초기 왕실에서는 효 사상의 일부로 『지장보살본원경』을 강조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월인석보』 권21은 16세기 복각본만 3종이고 1762년에도 중간되었을 정도로 널리 유통되었으며, 이는 『지장보살본원경』이 연해되어 대중에게 널리 읽혀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조선 초기 『지장보살본원경』 가운데에는 1447-1450 본처럼 서두에 별도로 지장예문이 들어간 예가 있으며, 예문에서는 지장보살의 탄생일인 7월30일에 재를 배풀어 복을 지으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⁴ 또, 지장보살이 염부제 중생을 위해 염라전에 있다고 하여 명부 세계에서 지장보살의 위의를 보여주며, 손에 석장을 들어 지옥의 문을 열고 보주를 들어 대천세계를 밝히는 지장보살의 모습은 조선 전기 성문형 지장보살상의 형식과도 비교된다.³⁵

나아가 1535년 판각된 『請文』에서는 지장과 시왕에 대한 최초의 헌공의식이 정립되는데, 이는 지장삼존과 시왕이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신앙되었음을 의미한다.³⁶ 각 불보살에 대한 청불 의식문과 진언 등을 수록한 이 책에서는 지장청과 시왕청의 항목이 등장하며, 특히 시왕청에서는 시왕을 의식단으로 청하기에 앞서 지장보살과 도명, 재수의 양보살을 청하고 있다. 재수보살의 전생은 무독귀왕으로 재수보살은 곧 무독귀왕이며, 이 기록에서는 시왕과 지장삼존이 지옥과 명부를 바탕으로 완전히 결합하고 있다.

예수재 의식집에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1576년 안동 광흥사에서 개관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을 살펴보면 우선 召請聖位篇에서 지장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육광보살을 청한 후 양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차례로 청한다.³⁷ 이어 召請冥府篇에서는 시왕과 26위판관, 3원대장군, 37위귀왕, 선악동자와 감재 직부사자 등 시왕을 필두로 하는 명부 권속을 숫자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호명하고 있다.³⁸ 이 책에서는 지장삼존과 명부권속의 위계를 구분하여 각각 예경하되, 판관, 장군, 귀왕, 동자, 사자 등 명부 권속의 숫자와 명호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보다 구체

³⁴ “...菩薩是七月三十日生可宜修齋供養禮讀作福...”

³⁵ “...手中金錫振開地獄之門掌上明珠光耀大千之界闍王殿上業鏡臺前爲南閻浮提衆生作箇證明功德...”

³⁶ 문상련(정각),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淨土學研究』 15(한국정토학회, 2011), p. 171.

³⁷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一卷』(韓國佛教全書 11 권, p. 429), “...一心奉請 大悲爲本 陰陽之界 現無邊身 廣濟群迷 世尊收化 而白佛言 末世衆生 我乃盡度 居歡喜國 南方化主 今日道場 若不降臨 誓願安在 是我本尊 地藏大聖 爲首 龍樹菩薩 觀世音菩薩 常悲菩薩 陀羅尼菩薩 金剛藏菩薩...(중략)...一心奉請 皆於本因 立大誓願 一現慈容 一現威相 侍我地藏 助揚眞化 道明尊者 無毒鬼王...”

³⁸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一卷』(韓國佛教全書 11 권, p. 430-432).

화된 명부 신앙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렇듯 지옥 구제의 성격을 강조하는 『지장보살본원경』이 조선 초기 크게 유행하면서, 지장보살은 명부 권속의 주재자로 예경의 대상이 되고 불전의 주존으로 존격 역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봉화 청량사 상이나 목포 달성사 상 등 16세기 상들의 경우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로 구성된 지장삼존과 시왕을 각각 제작하여 한 공간에 봉안하였다. 이 상들은 130cm 내외의 대형 상이자 양 협시를 거느린 한 전각의 주존으로써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양 협시를 비롯하여 시왕, 판관, 사자 등의 권속 역시 일정한 체계에 의해 각각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명부의 구제자인 지장보살이 주존으로 모셔지고, 여기에 시왕과 명부 권속들이 결합하여 독립된 전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지장보살본원경』의 간행으로 촉발된 지장 신앙은 언해본의 보급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는 지장보살이 명부 제 권속의 주존으로 자리매김하는 근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독자적인 의례가 성립되거나, 지장과 시왕에 대한 헌공의식이 정립되는 등 지장보살은 예배 주존으로써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명부 신앙이 이루어지는 독립적 공간으로 명부전이 유행하며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양협시, 시왕, 명부 권속이 제작되게 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지장보살은 명부전의 주존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게 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형식 및 구성의 변화와 그 배경으로서의 신앙적 측면을 경전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형식은 피건형과 성문형으로 나뉜다. 이 중 피건형은 수인, 착의법, 자세 등에서 고려 후기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두건의 모양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는 실제 승려가 착용하였던 두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문형은 조선 전기에 다시 유행하는 형식으로 피건형과 달리 석장을 지물로 하는 예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구성 면에서는 아미타삼존, 관음지장, 독존, 지장시왕 등 다양하게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지장 신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미타삼존의 협시에서 점차 시왕 및 명부 권속을 거느린 지장시왕의 주존으로 존격이 변화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지장보살 존격 변화의 원인으로 경전을 바탕으로 한 지장 신앙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조선 전기 망자 천도 과정에서 가장 유행하였던 경전은 『자비도량참법』과 『지장보살본원경』의 두 경전이다. 이 중 『자비도량참법』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활발히 유통된 경전으로 무불시대 시왕

제불에 대한 참회와 관음보살, 무변신보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참법의 주석서인 『자비도량참법집해』에서는 무변신보살은 곧 지장보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자비도량참법』에서는 관음, 지장보살이 무불시대 시방제불의 보처로써 현세에 참법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무불시대에 서방 정토 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신앙과 자연스레 결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의해 아미타삼존의 일부로 지장보살이 포함되거나 관음지장상이 제작되었다.

반면, 조선 초기부터는 새로운 판본인 3권본 『지장보살본원경』이 들어와 여러차례 판각되었으며, 언해본이 유통되어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지장보살본원경』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지장 신앙, 즉 명부 주존으로써의 지장 신앙이 유행하게 된다. 이 시기 지장보살 관련 의례문이나 청문, 의식집 등에서는 지장보살이 예배의 주존으로, 또 시왕을 비롯한 명부 권속의 주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왕과 결합된 명부 신앙이 완전히 정립되었음을 보여주며 지장보살은 양 협시를 거느린 독립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렇듯 지장보살이 여러의 협시에서 명부의 주존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명부 권속들이 결합한 명부전의 구성이 유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Key Words)** 지장보살(地藏菩薩, Jijang-bosal),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Jijangbosal bonwonkyeong*),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 *Jabidoryangchambub*), 명부전(冥府殿, *Myeongbujeon*), 무변신보살(無邊身菩薩, *Mubyeonsin-bosal*)

■ 투고일 2013년 5월 12일 | 심사개시일 2013년 7월 8일 |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

참고문헌

1. 사료, 문집

『抄錄譯註 朝鮮王朝實錄 佛敎史料集』1-1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編, 1997.

『韓國文集叢刊』9, 민족문화추진회, 1990.

『韓國佛敎全書』1-14,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編, 1979-2004.

『卍續藏經』, 新文豐出版公司編, 1976-1977.

『(新修)大藏經』, 大正一切經刊行會刊, 1923-1931.

2. 도록

(국문)

『高麗末 朝鮮初의 美術』, 국립전주박물관, 1996.

『고려불화대전』, 국립중앙박물관, 2010.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기념 소장품도록』,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

『木板에 새긴 佛心』, 관문사 정보박물관, 2006.

『美術史學誌 3-선운사, 내소사, 개암사의 불교미술』,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0.

『北韓文化財圖錄』,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Ⅳ,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불교문화재도난백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999.

『사진으로 보는 북한국보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살, 그후』, 불교중앙박물관, 2010.

『조선시대 감로탱 특별전-甘露』, 통도사 정보박물관, 2005.

『조선유적유물도감』11-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1994.

『朝鮮前期國寶展』, 호암미술관, 1996.

『한국의 금속미술-두드리고 다듬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 문화재청·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2011.

(일문)

『高麗·朝鮮の佛敎美術展』, 山口縣立美術館編, 1997.

『東アジアの仏たち』, 奈良國立博物館, 1996

3. 단행본

- 김리나 외 7인, 『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2011.
-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 장충지음, 김진무 옮김, 『地藏 I』,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장충지음, 김진무 옮김, 『地藏 II』,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鄭恩雨, 『高麗後期 佛敎彫刻 研究』, 문예출판사, 2004.
- 菊竹淳一, 鄭宇澤, 『高麗時代의 佛畫』, 시공사, 1996.
- 眞鍋廣濟, 『地藏菩薩の研究』, 三密堂書店, 1960.
- 菊竹淳一, 吉田宏志 편,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朝鮮王朝』11, 小學館, 1999.

4. 논문

- 김광희, 「16세기菩薩像 연구」, 『문물연구』1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pp. 103-137.
- 김정희, 「韓·中 地藏圖像의 比較考察-頭巾地藏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7, pp. 63-103.
- _____, 「朝鮮時代의 冥府信仰과 冥府殿 圖像研究」, 『미술사학보』4, 미술사학연구회, 1991, p. 33-74.
- 金春實, 「忠南 錦山郡 身安寺의 高麗末 塑造佛像: 阿彌陀三尊佛과 毘盧舍那佛三佛」, 『考古美術史論』1, 충남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0, pp. 119-154.
- 남경란, 「고려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구결 연구」, 『한민족어문학』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pp. 129-156.
- 남권희,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보』제4집,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0, pp. 179-234.
- _____, 「興德寺字로 찍은『慈悲道場懺法集解』의 撰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새로 발견된 覆刻本의 卷首事項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제7집, 서지학회, 1991, pp. 3-31.
- 文明大,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研究(1)」, 『梨花史學研究』13·14, 이화사학연구소, 1983, pp. 49-62.
- 문상련(정가),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淨土學研究』15, 한국정토학회, 2011, pp. 137-194.
- 文賢順, 「1450년~1460년대 紀年銘 아미타삼존불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128-157.
- 민병찬, 「禪雲寺의 地藏菩薩像」, 『美術史學誌』3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0, pp.331-338.
-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吳京厚, 「朝鮮前期 禪雲寺의 重創과 展開」, 『신라문화』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pp. 153-173.
- 이 만, 「高麗 彌授의 유식사상-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20, 한국불교학회, 1995, pp. 383-384.

- 이분희, 「조선전반기 아미타불상의 연구」, 『강좌 미술사』 2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191-225.
- 鄭恩雨, 「여말선초 소금동불의 유행과 제작기법의 변화」, 『미술사학』 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pp. 259-290.
- _____,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순천 송광사 高峰國師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13, pp. 101-126.
- 崔宣一, 「康津 無爲寺 極樂寶殿 阿彌陀三尊壁畫」, 『慶州文化研究』 5, 경주대학교경주문화연구소, 2002, pp. 253-278.
- 崔聖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강좌 미술사』 1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pp. 41-58.
- 黃金順, 「觀音·地藏菩薩像의 來世救濟 信仰」, 『미술사연구』 19, 미술사연구회, 2005, pp. 59-85.
- 허형욱, 「전라남도 順天市 梅谷洞 석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청동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美術資料』 70·71호, 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147-164.
- 金玉英, 「高麗時代 地藏信仰 研究」,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남궁사라, 「麗末鮮初 地藏菩薩像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朴贊熙, 「朝鮮初期 塔 奉安 地藏菩薩像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久野建,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東京國立博物館, 1992, pp. 4-14.
- 松本榮一, 「被帽地藏菩薩像の分布」, 『東方學報』 3, 東方文化學院 京都研究所, 1932, pp. 141-169.
- 尹富, 「《地藏菩薩本願經》綜考」, 『四川大學學報』 153, 哲學社會科學版, 2007, pp. 48-56.
- 佐和隆研, 「地藏菩薩の展開」, 『佛教藝術』 97, 毎日新聞社, 1974, pp. 3-13.

국문초록

조선 전기는 다양한 형식과 존상 구성의 지장보살상의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주목된다. 본 논문은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형식, 구성상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해보고 특히,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구성이 아미타삼존에서 명부의 주존으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배경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 중 피건형은 수인, 착의법, 자세 등에서 고려 후기 지장보살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두건의 모양은 각지고 양감이 커지는 형태로 변화하며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동시기 제작된 회화나 불화에서 보이는 승려의 모습, 문헌 기록상의 승려 두건 등은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의 두건과 일치하여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문형은 조선 전기에 다시 나타나 유행하는 형식으로 피건형과 달리 석장과 보주를 동시에 지물로 취하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존상 구성은 아미타삼존불의 협시, 본존이 없이 관음, 지장보살만 조성한 관음지장, 단독으로 조성된 독존, 협시를 거느리고 시왕 및 명부권속과 결합한 지장삼존 등 네 가지 구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장삼존과 시왕, 명부권속이 함께 조성된 예는 1565년 제작된 목포 달성사 존상 등 16세기부터 나타난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미타삼존의 협시 구성에서 명부의 주존으로 지장보살의 존격이 점차 변화한다. 또한, 명부전을 중심으로 명부 권속이 통합하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나 주목되며, 이는 16세기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장보살 존격 변화의 원인으로 지장 관련 경전의 유통과 유행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조선 전기 망자 추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자비도량참법』과 『지장보살본원경』의 두 경전이 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집중적으로 간행된 『자비도량참법』에서는 무변신보살, 관세음보살의 참법 유통 역할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무변신보살은 곧 지장보살이다. 즉, 무불시대의 시방제불을 본존으로 지장, 관음보살이 결합하는 구성의 『자비도량참법』은 서방 정토 왕생의 아미타신앙과 결합하여 아미타삼존의 구성에 지장보살이 포함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반면,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을 구제하고 명부 권속을 관할하는 지장보살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 경전은 14세기 후반부터 새롭게 유통되기 시작하여,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諺解되어 대중적으로도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지장삼존과 시왕에 대한 독자적 의례가 정립되고 의식집이 제작되는 등 지장보살은 예배의 주존으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명부 신앙의 독립적 공간으로 명부전이 유행하고 지장삼존과 시왕, 명부권속의 조성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f the Ksitigarbha Bodhisattva Statu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Yoo Dae-ho*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Ksitigarbha Bodhisattva Statues mad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1392-1910) and the cause and background of the bodhisattva's position changed from an attendant in the Amitabha Buddha Triad to the ruler of the Buddhist underworld. Among the early Joseon Ksitigarbha statues, those wearing headcloth display an influence from the tradition of late Goryeo icons in terms of symbolic hand gesture, the way of getting dressed, and postures. The headcloths became more voluminous, probably reflecting the tendency of the period. Ksitigarbha Bodhisattva appeared as a monk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with the sacred symbolic objects representing his virtue, such as Khakkhara and Cintamani.

Ksitigarbha Bodhisattva appears as one of the four types, as a solo figure, one of the attendants of Amitabha Buddha Triad, companion to Avalokiteśvara Kṣitigarbha, or the ruler of the underworld guarded by a throng of Buddhist deities including the Ten King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his transformation from an acolyte of Amitabha Buddha Triad to the principal being of the Buddhist Underworld began in the 16th century.

The change made in the Ksitigarbha's position in the Buddhist pantheon is related with the popularity of *Jabidoryang chambeop* (Principles of Repentance at the House of Mercy) and *Jijang Bosal Bonwongyeong* (The Ksitigarbha Pranidahaha Sutra) in the period betwee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Jabidoryang chambeop* (Principles of Repentance at the House of Mercy) published widely betwee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is focused on the important

*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eadquarters

role of the Boundless Body Bodhisattva (i.e. Ksitigarbha Bodhisattva) in the circulation of the bodhisattva's Repentance. The scripture is known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combin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Ksitigarbha. Meanwhile, The *Jijang Bosal Bonwongyeong* which was widely published and circulat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stresses the role of the Bodhisattva as a ruler of the underworld and the savior of those suffering in hell. The new tendency eventu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all of the Underworld as an independent place of worship and creation of a variety of subterranean deities made to assist Ksitigarbha Bodhisattva.